

| 축 사 |



김성동 (새누리당 통일위원장)

예년에 비해 오랜 기간 계속되었던 장마도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를 찾아 더위를 식힐 것입니다. 이 같은 시기에 조국의 미래 기둥인 고등학생들이 모여 통일관련 학술세미나를 갖는 것은 참으로 대견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땀 흘려 씨를 뿌리는 학생들의 노고가 풍성한 내일의 결실로 이어지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오늘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만 60년이 되는 날입니다. 같은 민족으로 분단된 채 고통 받던 월남과 월맹, 서독과 동독, 남예멘과 북예멘은 이미 통일을 이룬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구 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남한과 북한의 현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근래 북한의 상황이나 한반도 주변 환경을 고려해 볼 때 ‘통일’은 우리의 희망여부와 관계 없이 불원간 구체적으로 마주 대할 민족현안이 될 것입니다. 민족공동체의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의 사려 깊은 관심과 뜨거운 열정이 더욱 요청됩니다.

F.P.U의 평소 활동과 2회를 맞은 오늘 학술세미나에 무한한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더욱 부단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주축이 되어 주신 (사)평화한국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통일한국의 비전을 품고 묵묵히 한 길을 걷고 계신 허문영 박사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3. 7. 27